

## 사무엘하6-7장 다윗의 언약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_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사무엘하 6~7장 읽어오셨겠죠? 만약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읽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점차 점차 세워가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여전 골목길 마다 주님께 여쭙보고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부터 7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무엘하 6장>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땅으로 가져갔겠죠. 이로 인하여 블레셋 다섯 지방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하여 법궤는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는지 법궤 안을 들여다 봅니다. 이로 인하여 칠십명이 죽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I .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무려 20년간 이곳에 있었죠.

다윗은 열두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시골마을에 있으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있는 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종교를 도구 삼아 자신들을 신격화 했습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격화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는게 아닌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법궤를 옮기길 원했습니다. 이제 20년간 아비나답에 있던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호의 지휘아래 수레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법궤 자체에 손을 대지 않고 채를 만들어서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쥘니다. 그리고 사람이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호는 법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수레로 옮기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이죠. 하지만 수레를 이용하여 법궤를 옮기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 삼하 6:5-7절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법궤가 움직이는 동안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드린 것이죠. 그런데 순간 소가 뛰었고 곁에 있던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궤 옆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웃사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해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도 당장에 뛰어가 법궤를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운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 수레에 싣어 운반하였습니다.

우리도 한 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를 말이죠.

웃사가 죽는 사고가 나자 다윗은 겁을 먹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잠시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블레셋 사람을 세 번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이고 두 번째는 그가 망명을 갔던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벧에돔입니다. 오벧에돔은 블레셋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비록 다른 나라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쓰임 받았습니다. 3개월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오벧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며 다시 다윗의 성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웃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사람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합니다. 특이한 점은 여섯발자국 걸을 때마다 소와 살진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성에 들어갈 때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이장면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게 됩니다. 미갈의 생각에 다윗이 옷이 벗겨지면서 까지 춤추는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방탕한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체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었느냐며 나무랍니다. 이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삼하 6:21, 22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일로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를 갖기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 세 인물을 보게 됩니다. 웃사, 다윗, 미갈입니다.

먼저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웃사도 예배자여야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예배를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은 어떤지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다윗인지, 아니면 편안함만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는 웃사인지, 아니면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미갈인지를 말이죠. 다윗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삼하 7:1)

그동안 다윗은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 하루가 전쟁터였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안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보통 사람은 평안해 지면 잘못된 일을 펼치기 쉽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긴장되어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평안하고 시간이 될 때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현재 너무나도 좋은 벡향목 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야기 합니다. 사무엘상 7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 1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벡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와 언약케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 2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기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의로 가득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 싶던 말씀을 꺼내십니다.

삼하 7:4-6

- 4 그 밤에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단다.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어!”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니셨다는 말씀은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목자로서 머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 떼 틈에 있던 어린 목자인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다시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이 죽어 조상들에게 갈 때에 너의 자녀를 통하여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너무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지어지는 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집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신약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 불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시는 집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집은 언제인가는 무너지지만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왕국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7장 13~15절

-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총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집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집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교회를 만드는 머릿돌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징계를 받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실패하더라도 완성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대가 끊어질까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함께 잠자리를 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입니다. 둘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은 기생이었습니다. 셋째는 룻입니다. 사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방 모압 여인이죠. 넷째는 다윗의 총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저지를 범죄와 살인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여인과 이방여인 그리고 살인의 상징인 여인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은 인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구원을 향한 열심을 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고 악할 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 어마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이에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하 7: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앞에 다윗의 심령이 감사로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장면으로 7장이 마무리 됩니다.

**삼하 7: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한 감사기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야가 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성취되기 까지는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신 했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다니엘에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바울에게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난하고 악할지라도 언제인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에 기도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강의 안내>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3강으로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만나교회

홈페이지 강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